

산업체 구직준비역량과 대학생활 스트레스관계 연구

한미희

남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eking preparation capacity and stress from college life

Mi-Hee Han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Namseoul University

요약 오늘날, 대학생들은 취업준비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산업체 진출을 위한 구직준비역량과 이에 대한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대상으로는 충남에 위치한 N대학교의 교양수업을 듣는 학생 158 명으로 표집하였다. 또한 분석방법으로는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년에 따라서는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구직준비역량은 일원배치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구직준비역량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구직역량을 위하여 대학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 고민과 함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대학생들의 산업체에 진출할 구직역량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준비의 중요성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키워드 : 산업체, 구직준비역량, 대학생활 스트레스

Abstract Nowadays, many college students have difficulty in finding employment. The current research intends to identify how their preparation for job seeking competence affects their stress in college life. For that purpose, the research subjects consist of a group of 158 students taking liberal arts classes at N University located in Cheonan, Korea. A set of analysis methods were utilized to verif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job seeking preparation competence and stress from college life: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correlation analysis and a univariate variance analysis. As a result,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f stress in college life and job seeking preparation confidence according to grade, and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stress college life and job seeking preparation confidence. Colleges, thus, should plan and design practical and systematic measures to help them enhance their job seeking competence at colleg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lso expected to provide college students with suggestions that might help understand required qualities by the industry and society.

Key Words : Industry, Job seeking preparation competence, Stress in college life

1. 서론

최근들어 대학교육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산업체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대처방법으로 산업체는 실제적으로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많은 제

도적 장치와 구체적 선발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 또한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NCS 직무능력과 역량 교육 등을 확대화 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개인도 산업체의 구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턴십이나 현장실습 같은 과정을 통해 훈련의 기회나 실무 기술을 익히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개인이 아니라 대학에서도 실습을 위한 산업체를 확보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엇보다도 선진화된 시설과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 산업체에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실습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1].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산업체 구직역량의 함양과 이를 위한 대학생할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대학생은 발달단계상 청년기의 마지막 시기로서 자신의 장래와 관련된 여러 선택과 결정에 직면하여 자신의 가치와 목표 행위를 성찰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2].

하지만 많은 대학생들이 이와 같은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불만, 가치관의 혼란, 전공 학업 등에 대한 갈등, 미래에 대한 모호함과 걱정, 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부분에 스트레스를 갖고 생활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성영모(2007)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대부분 진로태도 성숙의 문제, 진로 의사결정 문제, 진로정보에 대한 문제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3] 최경원·김은주(2011)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불확실한 미래, 취업난과 심화와 청년실업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에게 진로결정은 심각한 수준에서 고민하게 되어 취업스트레스와 불안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4].

실제로 지금까지 대부분 진로나 취업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5, 6]. 구직이나 구직역량으로 인한 대학생할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는 대부분 진로, 취업, 스펙 등에 대한 용어가 익숙하며 구직이나 구직준비, 구직역량, 구직 기술습득, 구직경력준비라는 것 등에 대하여는 그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

상으로 구직과 관련된 연구[7][8] 등은 매우 제한적이며, 여성, 노인, 중장년, 실업 장애인, 실직자 등의 실제로 취업이 어려운 대상들에 대한 연구들만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9-12].

위와 같이 구직활동은 대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대한 중요한 과정이며 보다 더 이를 활성화 해야 하는 정책과 부단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에 주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구직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구직준비에 대한 역량이 매우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대학 또한 학생들의 산업체 진출을 위해서 구직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내용과 운영에 대한 신중한 함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대학에서의 산업체 진출을 하기 위한 구직 역량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더 유익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대학과 산업체와의 상호 협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교적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게 된다.

2. 이론적 배경

대학생들은 앞에서도 밝힌 바가 있듯이 청소년후기이며 앞으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주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할 성인초기의 입문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시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회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위한 직업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이를 위해 전공하고 있는 학업부터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심지어는 과도한 스트레스까지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대학생들의 중등시절동안을 상기해보면 우리나라의 여건상 입시교육을 위한 주입식 교육과 경쟁교육으로 인하여 자신이 진출할 노동시장이나 산업체, 구직에 대한 정보나 인식이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구직에 대하여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일이나 직업을 구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직역량 또한 고교, 전문대학, 대학교 졸업예정자들이 첫 직장을 성공적으로 얻고 적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총체적 능력을 의미한다[13].

또한 역량이라는 것은 미래직업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직업세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준비를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학생 역량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습 경험을 통해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역량을 더 성장시킬 수도 있으며, 개인의 노력은 물론 대학의 지원에 따라 발전의 여지가 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14].

그러므로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단기간에 얻어지는 능력과 기술이라기 보다는 대학생활동안 자신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실제로 미래에 대한 설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상기할 것은 이와 같은 역량, 진로, 취업, 스펙 등에 대한 용어는 매우 익숙하나, 구직이나 구직역량, 구직기술습득, 구직경력준비라는 것에 대하여는 그 용어자체가 익숙하지 않다고 예측되어진다. 흔히 성인초기단계에서 많이 쓰여지는 구호 중, 청년구직자의 실업문제 탈출, 청년 구직자의 취업준비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볼 수 있는데 구직은 대부분 취업을 못하는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청년층이나 경력단절여성이나 일자리를 잃어버린 성인 실직자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로, 취업 등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구직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구직역량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구직역량은 입직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동기 등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15]. 고 보며 지속적인 대학의 체계적 방안과 개인의 노력이 수반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Variable		N(%)
Gender	Male	93(58.9)
	Female	65(41.1)
Year in Uni. V	2	36(22.8)
	3	67(42.4)
	4	55(34.8)
	Humanities	42(26.6)
Major in Uni. V	Mangement	34(21.5)
	Medical field	34(21.5)
	Engineering	29(18.4)
	Art & Physical	19(12.0)
Total		158

본 연구를 위한 대상으로는 충남에 위치한 N대학교의 학생들 중, 조사에 성실히 임한 학생들 158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구체적 특성은 Table 1의 내용과 같다.

3.2 측정도구

3.2.1 대학생활 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김진희(2011)가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여 즉 대학생활 스트레스 척도 27문항에서 5문항을 제거하고 22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적용하였다[16]. 이를 통해 김진희의 대학생의 학업, 경제, 장래 및 취업, 가치관을 포함하는 4개의 하위요인에서 하나의 요인을 추가하여 선택갈등이라는 명명으로 5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점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a는 .908이다.

3.2.2 구직준비역량 척도

본 연구에서는 구직준비 역량척도에 대하여 문운경(2015)이 적용한 27개 문항중에서 구직기술습득과 구직경력준비문항 11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15]. 이 척도는 Likert 5점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구직준비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는 .809이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구학적 특성을 위한 빈도분석과 대학생활 스트레스 척도는 연구대상에 적합한 문항의 타당성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척도와 학년간 일원배치분산분석과 하위요소들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주요변인과 학년간 기술통계치

4.1.1 주요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치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구직준비역량 준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치를 구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Mean & Standard Deviation of major Variables

Variable	M	SD
Stress in college life	2.6234	.6328
Economy	2.2711	.8209
Values	2.6076	.8362
Studies	2.7722	.7688
Future&Job	2.7674	.8256
Selection Conflicts	2.8750	.6615
Job seeking pre. competence	2.5115	.6000
Job skill acquisition	2.4757	.6348
Job experience preparation	2.3747	.6400

Table 2에 따르면 대학생활 스트레스 전체평균은 M=2.6234(SD=.6328)이고, 구직준비역량의 전체평균은 M=2.5115(SD=.6000)이다. 대학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소는 선택갈등, 학업, 장래 및 가치관, 경제 순으로 평균이 높았고 구직준비역량의 하위요소는 구직기술습득, 구직경력준비순으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1.2 주요변인 학년간 기술통계치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구직역량 준비에 대한 학년간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치에 대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Mean & Standard Deviation of grade

Variable	Year.	M	SD
Stress in college life	2	2.2109	.5453
	3	2.5142	.5323
	4	3.0264	.4626
Job seeking preparation competence	2	2.3333	.4776
	3	2.6716	.7100
	4	2.4331	.5840

Table 3에 따르면 대학생활 스트레스 변인은 2학년, 3학년, 4학년에 따라 평균이 높았으며, 구직준비역량 변인은 2학년, 4학년, 3학년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구직준비역량은 3학년보다 4학년의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4학년 학생들이 구직준비역량에 대하여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예측되어진다.

4.2 주요변인 탐색적 요인분석

대학생활 스트레스 변인에 대한 잠재요인을 탐색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4에서 보여주고 있다.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Mental stress in college life

Items	factor					
	1	2	3	4	5	
1	2	.805	.305	.056	-.039	.002
	10	.745	.271	.098	.252	.074
	18	.707	.065	.103	.111	.406
	6	.697	.255	-.062	.130	.031
	25	.669	-.043	.245	.040	-.034
	14	.642	.138	-.028	.442	.307
2	19	.225	.794	.181	.044	.132
	11	.296	.758	.153	.165	.140
	13	.039	.623	.025	.457	.008
	3	.178	.586	.033	.390	.221
3	16	-.047	.147	.820	.101	.027
	12	.170	.115	.755	.206	.268
	24	.042	.024	.721	-.096	.311
	4	.325	.098	.620	.422	-.069
4	5	.223	.197	.193	.762	.217
	7	.375	.335	-.009	.607	.121
	15	-.020	.102	.141	.569	.554
	9	.080	.314	.421	.552	.102
	26	.184	.087	.481	.071	.643
5	21	-.002	.336	.263	.325	.586
	27	.214	.538	.063	.137	.544
	1	.260	.479	.214	.187	.487
Eigen value	3.702	3.138	2.877	2.622	2.195	
Common variance	16.829	14.265	13.076	12.098	9.977	
Cumulative variance	16.829	31.094	44.170	56.268	66.246	
(Cronbach's a .843)	.835	.804	.843	.786	.785	

KMO=0.818 , Bartlett' s test $X^2 = 2000.280$ (p<.001)

Table 4에 의하면 본 연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에 적합한 공통요인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KMO)의 표본 적절성검사 실시와 Bartlett의구형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KMO의 값은 0.818로 요인분석을 위한 높은 표본 적합치를 보여 요인분석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치에 한 X^2 의 값은 2000.280(p<.001)으로 변수들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으로서 위의 표에서 5개의 요인이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5개의 요인들이 전체분산의 66.246%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4.3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구직준비역량에 대한 학년간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4.3.1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학년간 일원배치 분산 분석 결과

Table 5. ANOVA analysis of Mental stress in college life

Group	SS	df	MS	F	P
Inter-groups	15.860	2	7.930	30.228	.000***
Intragroup	40.661	155	.262		
Total	56.521	157			

* P<0.5, ** p<0.1, *** p<.001

Table 5 에 따르면 학년에 따라서 대학생할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F=30.228,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2 구직준비역량과 학년간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Table 6에 따르면 학년에 따라서 구직준비역량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F=4.156,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ANOVA analysis of Mental stress in college life

Group	SS	df	MS	F	P
Inter-groups	3.199	2	1.600	4.156	.017*
Intragroup	59.668	155	.385		
Total	62.868	157			

* P<0.5, ** p<0.1, *** p<.001

4.4 주요변인의 상관분석

본 연구의 변인들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Table 7과 같다.

Table 7 Correlation Analysys of Valiabies

	[1]	[2]	[3]	[4]	[5]	[6]	[7]	
eco	[1]	1						
val	[2]	.521**	1					
stu	[3]	1000**	.521**	1				
fut&Job	[6]	.514**	.655**	.479**	1			
sel	[6]	.390**	.530**	.410**	.576**	1		
conflict								
job skilla	[6]	-0.39	-0.19	-0.39	-0.52	-0.70	1	
job ex .p	[7]	-0.89	-0.20	-0.89	-0.51	-0.36	.664**	1

* p<.05 ** p<.01 *** p<.001

Table 7에 따르면 대학생할 스트레스변인의 하위구성요소인 경제, 가치관, 학업, 장래 및 취업, 갈등간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구직준

비 역량변인 하위요인인 구직기술습득과 구직경력준비간의 관계도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학생할 스트레스변인과 구직준비 역량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5. 결론

현재 청년실업이라는 큰 이슈앞에 대학과 학생 개개인은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대학은 상아탑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로 진출할 인재양성을 위해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와 각박한 노동시장을 이해하는 것과 산업체 진출을 피하는 점에 있어서는 주입식 교육과 이론교육에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직’, ‘구직역량’, ‘구직기술’ 구직경력이라는 용어자체는 더더욱 생소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이와 같은 학생들의 구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기할 것은 대학생들에게 구직에 필요한 구체적인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역량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17]. 따라서 이와 같은 인식의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구직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과 개개인의 부단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교육의 장으로서 대학생들의 사회로의 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ACKNOWLEDGEMENTS

이 논문은 2016년도 남서울대학교 교내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Funding for this paper was provided by Namseoul University. 2016)

REFERENCES

- [1] S. K. Kim, D. H. Cho, S. H. Lee, B. K. Koo, "An Analytical Study of the Management State and Effectiveness for the Sandwich Education Surveyed the Paticipated Industry and Students," *Kore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 12, No. 2, pp. 29-70, 2001.
- [2] H. K. Cho, S. K. Jung "Relationship among College Life

- Stress, Alienation and College Adjustment: Focused on Transferred and Non-transferr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5, pp. 2779-2793, 2015.
- [3] Y. M. Sung, "The Effects of Cognitive-Behavior al Group Counseling for the Coping Career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Vol. 15, No. 1, pp.26-37, 2007.
- [4] K. W. Choi, E. J. Kim "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Maturity, Job stress, Depreession of Colleges Students," *Proceeding of the conference of The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pp. 35-36, 2011.
- [5] G. P. Ko, M. Y.Sim,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7, No. 1, pp. 19-38, 2014.
- [6] S. H. Lee,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Parent-Related Career Suppor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3, No. 3, pp.1461-1479 2012.
- [7] G. N. Lee, "An Analysis Of Educational Needs For Developing Employment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1, No.3, pp. 199-225, 2012
- [8] J. W. Choi, W. S. Kang, "Job preferences of job seekers from university and difference of gender and location of university on job preferences," *The Journal of Society for Humanities Studies in East Asia*, Vol. 33, No, 12, pp. 633-652. 2015
- [9] K. W. Cho, J. W. Lim, "Research over Characteristics of Female Job Searching, Hiring, and Plans to Utilize Their Employment - Centered around Jeonbuk Region," Vol. 4, No. 1, pp. 96-125, 2012.
- [10] Y. M. Moon, "A Study on Influence of Job Search Activities on Elderly Employment," *Social Welfare Review*, Vol. 11, pp. 39-156, 2006.
- [11] S. S. Ahn, K. H. Shin, Y. S. Hahn, J. K. Tak, T. Y. Yoo, T.Y. Han, J. O. Hwang, "Gender Differences in Responses to Unemployment and Job Search Intensity,"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10, No.3, pp. 375-404. 2005.
- [12] S. L.LEE, "The Effects of Job Search Behaviors on Re-employment of the Unemployed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43, pp. 299-327. 2000.
- [13] K. Y Lee, Y. E. Kim, G. N. Lee, "A Study of the Development on Subject for Enhancement of Pre-service Teachers' Employment Competency in Teachers Collage," *The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 22, No. 4, pp. 193-210, 2016.
- [14] Y. K. Moon, K. J. LEE,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online System to improve Undergrauates Student's Competency," Vol. 16, No. 6, pp. 3807-3818, 2015.
- [15] Y. K. Moon, "The Analysis of Employment Competency System of University Students," *Kyongg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6.
- [16] J.H.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and Health Promoting Lifestyle in the relationship of Ewha Womans University*, 2011.
- [17] G. N. Lee, "An Analysis Of Educational Needs For Developing Employment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1, No. 3, pp. 199-225. 2012.

저 자 소 개

한 미 희(Hon-Mi Hee)

[정회원]



- 1991년 2월 : 동국대학교 국민윤리 학사
- 2005년 2월 :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 2008년 2월 :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 2010년 9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관심분야> : 취업, 구직역량, 리더십 등